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장애정도 매개효과 중심으로

김승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교수

A Study of the Impact of Economic Activity among Middle-Aged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Level

Soung-Wa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요 약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장애정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 2~8차년도에 참여한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 중고령 여성장애인 4,961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정도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정도를 고려한 일자리 설계가 필요함을 실천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고령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생활만족도, 장애정도,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level of middle-age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The survey respondents were 4,961 women with disabilities aged from 45 to 65 who participated in one of the first series of the PSED(2nd to 8th).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e economic activities of middle-aged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level of disability were correlated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phase 1 and 2, and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ffected life satisfaction level through the level of disability as a parameter, indicating that a mediating effect does exist. This study suggests that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middle-aged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through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 employment scheme based on their level of disability is necessary.

Key Words : Middle-aged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level, Level of disability, Mediating effect

1. 서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과 함께 장애를 동시에 지닌 중고령 장애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

슈화되고 있다. 2016년 등록 장애인수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이 총 75.1%(1,884,184명)를 차지한다[1].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평균수명이 길어서 중고령 여성장애인(middle-aged and older women with

*Corresponding Author : Soung-Wan Kim(waniss@knuw.ac.kr)

Received August 22,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11,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disabilities)의 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의 여성과 여성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억압받을 가능성이 많은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2-4]. 특히, 중고령 여성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요인과 장애의 요인, 고령화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5]. 더욱이 한국에서는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고령자를 포함한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 가능성이 낮은 젊은층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며, 중고령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6,7].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 요인 등을 분석한 연구[8-12]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중고령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장애정도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의 장애정도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그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중고령 여성장애인과 경제활동

중고령 여성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한다. 고령장애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이나 55세 이상 장애인을 고령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7]. 최근에는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서 중고령자를 45세부터 정의하는 연구들이 많으며, 한국의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에서는 만 45에서 65세에 속하는 장애인을 중고령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개념을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에 속하며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EDI) 2017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여성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구의 42.0%이다[1]. 이는 2007년에 비해 3.0% 증가하는 것으로 향후 장애 발생이 질병과 사고 등의 후천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1,6].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이 22.4%로 남성장애인(50.3%)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 이처럼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은 장애차별과 이중차별 문제를 야기 시켜 여성장애인이 빈곤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1,13].

여성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진입은 사회생활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이나 사회복지체계로부터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하여 만성적인 의존을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논의하였다[14-17]. 또한 성경현 외(2006)는 여성장애인의 상당수가 학력과 함께 소득이 낮지만 가계의 주 소득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수입이 경제적 자립과 생존권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8]. 그리고 중고령 여성장애인에게 경제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2.2 중고령 여성장애인과 생활만족도

Campbell et al(1976)은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질 높은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9]. 이후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만족도,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질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20]. Clover(2008)는 생활만족도를 객관적인 측면에 더불어 주관적 개인의 느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가치, 지역 환경,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조건 관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21,22]. 이후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다양한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23,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일상생활에서 중고령 여성장애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23,24]. Miller & Dishon(2006)은 고용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23]. 또한 Thoren-Jossen et al(2001)은 장애인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4]. 그리고 류시문(2004)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장애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다고 논의하였으며[25], 박준성 외(2011)는 임금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로기간이 지속되고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26]. 또한 장애인들이 일자리 상태가 정규직을 유지하고 일자리의 질이 좋은 일자리일수록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27,28].

2.3 중고령 여성장애인과 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장애정도가 고려된다. 이선우(1997)는 장애인 취업형태 영향 요인 연구에서 장애정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립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29], 백은령 외(2007)도 장애정도가 경증일 때 취업 및 취업유지에 유리하다고 논의하였다[30]. 또한 정병오(2005)연구에서도 여성장애인이 경증일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31]. 특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는 경제활동 참여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ennedy & Olney(2006)연구에서는 건강문제가 적고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취업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32]. 또한 한애경·윤혜미(2012)는 장애정도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증 여성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차별경험이 많고 연령이 높을 때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고, 경증 여성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차별경험이 많고 연령이 높으며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3]. 그리고 김승완·전지혜(2016)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장애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중증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경증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구균등화지수가 높고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장애정도를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간주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즉, 장애가 중증인지 경증인지에 따라 표출되는 문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욕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29-31,33-36] 장애정도는 노동시장 진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정도가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의 1차 웨이브 2~8차년도(2009~2015년)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을 대표하는 조사로 패널표본 5,092명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고용서비스, 직업적능력, 직업훈련, 경제활동, 소득 및 소비, 일상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37]. 조사대상은 2~8차년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2015년)에 참여한 등록장애인 중 만 45세 이상 65세 이하 중고령 여성장애인 4,9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만족정도로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결혼생활 만족과 현재하는 일은 걸척치가 높아서 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75로 높게 나타났다.

3.3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이다. 경제활동 상태(2개 구분) '1=미취업자, 2=취업자'로 되어 있는 것을 '0=경제활동 미참여, 1=경제활동 참여'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4 매개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장애정도는 '1=경증, 2=중증'으로 되어 있는 것을 '0=경증, 1=중증'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개인적 요인, 장애건강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인에서 연령은 비율변수로서 분석에 그대로 사용하였고, 빈도분석에서는 '1=45세 이상 50세 이하, 2=51세 이상 55세 이하, 3=56세 이상 60세 이하, 4=61세 이상 65세 이하'로 연령대로 다시 설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학력은 '1=무학, 2=초등학교 졸업, 3=중학교 졸업, 4=고등학교 졸업, 5=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1=미혼, 2=유배우(결혼/동거), 3=이혼, 4=사별, 5=별거'로 되어 있는 것을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둘째, 장애건강 요인에서 장애유형은 '1=신체의부장애, 2=감각장애, 3=정신적 장애, 4=신체 내부 장애'로 되어 있는 것을 '0=신체의부장애, 1=감각장애 정신적장애 신체내부장애'로 더미 처리해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만성질환 여부는 '1=있음, 2=없음'로 되어 있는 것을 '0=만성질환 없음, 1=만성질환 있음'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1=하층, 2=중하층, 3=중상층, 4=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0=하층 중하층, 1=중상층 상층'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는 '1=예, 2=아니오'로 되어 있는 것을 '0=미수급, 1=수급'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택소유 여부는 '1=자가, 2=전세, 3=월세(보증금 있음), 4=월세(보증금 없음), 5=사글세, 6=무상, 7=기타'로 되어 있는 것을 '0=미소유, 1=소유'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후준비 여부는 '1=예, 2=아니오'로 되어 있는 것을 '0=준비하지 않음, 1=준비함'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6 분석방법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장애정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선형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입증을 위해서 Mackinon et a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 검증 값을 제시하였다[38].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술통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연령대는 56세 이상 60세 이하가 41.2%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1세 이상 55세 이하 32.4%, 45세 이상 50세 이하 26.3%, 61세 이상 65세 이하 0.0%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Age group	45-60	1,307(26.3%)
	51-55	1,608(32.4%)
	56-60	2,046(41.2%)
	61-65	0(0%)
Education	No schooling	857(17.3%)
	Elementary school	1,596(32.2%)
	Middle school	1,096(22.1%)
	High school	1,209(24.4%)
	College or higher	203(4.1%)
Spouse	No spouse	2,165(43.6%)
	Existence of spouse	2,796(56.4%)
Disability level	Minor	2,957(59.6%)
	Sever	2,222(40.4%)
Type of disability	External Physical	2,903(58.5%)
	Sensory	1,308(27.8%)
	Mental	259(5.2%)
Chronic illness	Internal physical	419(8.4%)
	None	1,800(36.3%)
	Exists	3,161(63.7%)
Socioeconomic status	Lower class, Lower middle class	4,685(94.5%)
	Upper-middle class, Upper class	275(5.5%)
Basic national livelihood security	Non-recipient	3,549(69.7%)
	Recipient	1,502(30.3%)
Home ownership	Non-owner	2,675(53.9%)
	Owner	2,286(46.1%)
Retirement planning	Not planning	4,209(84.8%)
	planning	752(15.2%)

둘째,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2.2%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24.4%, 중학교 졸업 22.1%, 무학 17.3%, 대학교 졸업 이상 4.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이 49.5%를 차지하여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학력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있음이 56.4%, 배우자 없음이 43.6% 나타났다.

넷째, 장애정도는 경증이 59.6%, 중증이 40.4%이다.

다섯째, 장애유형은 신체의부장애가 58.5%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감각장애 27.8%, 신체내부장애 8.4%, 정신적장애 5.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만성질환 여부에서 만성질환 있음이 63.7%, 만성질환 없음이 36.3% 나타났다.

일곱째,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서 하층, 중하층이 94.5%, 중상층, 상층이 5.5% 나타났다.

여덟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에서 미수급이 69.7%, 수급이 30.3% 나타났다.

아홉째, 주택소유 여부에서 미소유가 53.9%, 소유가 46.1% 나타났다.

열 번째, 노후준비 여부에서 준비하지 않음이 84.8%, 준비함이 15.2% 나타났다.

4.2 중고령 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생활만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중고령 여성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의 만족도에 대하여 보통의 낮은 수준이 아니면 그 이하의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Category	Life Satisfac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2009(2nd year)	3.01	0.56
2010(3rd year)	3.02	0.54
2011(4th year)	2.99	0.50
2012(5th year)	3.01	0.53
2013(6th year)	3.01	0.53
2014(7th year)	3.01	0.50
2015(8th year)	2.99	0.52

4.3 경제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장애정도 매개효과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이 단계적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변수들에서 VIF가 1.5미만으로 측정됨에 따라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1 단계 분석은 조정된 R^2 값이 0.208이고 F값이 130.873($p < 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경제활동 여부에 대하여 B값이 0.072($p <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2단계 분석에서는 장애정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장애정도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조정된 R^2 값이 0.123으로 1단계의 0.208보다 증가하였으며, F값도 123.296($p < 0.001$)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2단계 투입한 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B값이 0.050($p < 0.001$)으로 1단계보다 작아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장애정도($B = -0.092$, $p < 0.001$)가 유의미함에 따라 장애정도는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Results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Level

Variables	1 st stage analysis		2 nd stage analysis	
	B	t	B	t
(constant)	2.913	30.502***	2.976	31.098***
Age	-0.001	-0.516	-0.001	-0.763
Education	0.050	7.804***	0.047	7.346***
Spouse	0.076	5.068***	0.047	7.346***
Type of Disability	0.012	0.085	0.030	2.122*
Chronic illness	-0.175	-11.839***	-0.178	-12.103***
Socioeconomic status	0.334	10.964***	0.326	10.754***
Basic national livelihood security	-0.128	-7.165***	-0.109	-6.003***
Home ownership	0.093	5.742***	0.088	5.453***
Retirement planning	0.182	8.949***	0.186	9.178***
Economic activity	0.072	4.744***	0.050	3.238**
Disability level			-0.092	-6.148***
Adj R^2	0.208		0.123	
F	130.873***		123.296***	

* $p < 0.05$, ** $p < 0.05$, *** $p < 0.001$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장애정도가 독립변수인 경제활동 여부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적(-)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Z값이 3.780으로 나타나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정도는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학력($B = 0.047$, $p < 0.001$), 배우자 유무($B = -0.080$, $p < 0.001$), 장애유형($B = 0.030$, $p < 0.05$), 사회경제적 지위($B = -0.326$, $p < 0.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여부($B = -0.109$, $p < 0.001$), 주택소유 여부($B = 0.088$, $p < 0.001$), 노후준비 여부($B = 0.186$, $p < 0.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중고령 여성장애인이 학력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장애유형이 감각장애, 정신적장애, 신체내부장애인이며, 만성질환이 없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층, 상층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않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을 확률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는 매개변수인 장애정도를 경유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장애정도는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장애정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 2~8차년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2015년)에 참여한 등록장애인 중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 중고령 여성장애인 4,961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정도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에 장애정도가 매개효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정도를 고려한 일자리 설계가 필요함을 함의한다. Roessler et al(2003), 황보옥(2011), 전정식 외(2006), 김승완 외(2015)는 장애인 노동시장 구조가 경증 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을 고려한 직업설계 등의 공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36,38,39]. 따라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중고령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김승완 외(2015)는 장애정도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시간제 일자리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경증 여성장애인의 경우 고용관련 요인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증 여성장애인은 배우자 유무, 연령 등과 같은 인구사회적 요인과 장애기간 및 장애유형 등 장애관련 요인이 시간제 일자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6]. 즉,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가 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증과 경증이라는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여성, 장애인, 고령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같이 중증 여성장애인이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하면 법적 의무 고용률 계산 시 시간제 근로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Thoren-Jossen et al(2001), 류시문(2004), 최영란(2017)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20,24,25]. 최영란(2017)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장애인의 고용상태가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중고령 여성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재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설계하고 양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20]. 또한 그들이 단순 일자리에 벗어나 본인의 적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면 생활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통제변수 중 학력, 배우자 유무, 장애유형, 사회경제적 지위, 주택소유 여부, 노후준비 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나타냈으며, 만성질환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부적(-)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중고령 여성장애인이 노후준비를 할수록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래에 빈곤에 처할 확률을 줄이고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후의 자산관리 및 생계유지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중고령 여성장애인들은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수급을 벗어나려는 노력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 구직역량을 높이고 고용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수급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여성장애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17). *2017 Statistics on Disabled Persons at a Glance*. SEONG NAM : EDI.
- [2] G. M. Park & M. A. Kim. (2017). The lives of middle-aged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Application of photo voice methodology. *Korea Journal of Family Welfare*, 56, 39-68.
- [3] S. Healey. (1994). The common agenda between old women, women with disabilities and all women. *Women & Therapy*, 14(3-4), 65-77.
- [4] K. B. Jo & J. Paik. (2018).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job satisfaction of working wom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33-140.
- [5] J. H. Sim & M. Y. Lee. (2012). *A Study on Retirement Characteristics among Middle-aged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SEONG NAM : EDI.
- [6] U. J. Choi, K. S. Park & S. H. Lee. (2014).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among middle-aged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4(3), 123-146.
- [7] H. S. Lee & U. K. Sim. (2011). The conditions of economic activity among middle-aged and women with disabilities and employment promotion measures.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Symposium Journal*. (pp. 315-329). SEONG NAM : EDI.
- [8] J. Y. Gwak. (2010). A study on the factors for entering the labor market and maintaining employment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0(1), 79-104.
- [9] K. T. Kim, B. H. Park, C. H. Kang, S. K. Lee & K. H. Lee. (1999).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desire levels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Korea Academy of Social Welfare*, 37, 33-66.
- [10] H. K. Oh. (2002). Economic activity conditions and measures among Korea's disabled women. *Social Sciences Research*, 18, 31-49.
- [11] E. M. Lee. (2006). A study on the process of job searching and job maintenance among physically challenged women. *Disability & Employment*, 16(1), 67-92.
- [12] B. O. Jeong. (2010).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Welfare Administration*, 20(2), 143-174.
- [13] A. K. Han & H. M. Yun. (2012).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among women with severe and minor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2(3), 125-153.
- [14] A. Barisin, T. Benjak & G. Vuletic. (2011).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relation to their employment status. *Croatian Medical Journal*, 52(4), 550-556.
- [15] L. M. Conyers. (2004). Understanding of HIV/AIDS and employment : Perspective of focu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8(1), 5-18.
- [16] A. Naami, R. Hayashi & H. Liese. (2012). The unemployment of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Ghana : Issue and recommendations. *Disability and Society*, 27(2), 191-204.
- [17] S. L. Schonbrun, A. P. Sales & C. M. Kampfe. (2007). RSA services and employment outcomes in consumer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Journal of Rehabilitation*, 73(2), 26-31.
- [18] J. H. Sung, Y. M. Lee & S. J. Oh. (2006). A study on the job conditions and satisfaction in women with and without a disability : Focusing on women working in the same place of business. *Asia Economic Studies*, 45(1), 101-140.
- [19] A. Campbell, P. E. Converse & W.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20] Y. L. Choi. (2017). The impact of employment status changes among disabled persons on Lif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are Management*, 23, 79-95.
- [21] A. Clover. (2008).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studies of disabled children.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18(9), 423-426.
- [22] K. J. Lee & M. S. Chung. (2017). The effect of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on economic independ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disabled person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337-348.
- [23] A. Miler & S. Dishon. (2006).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ultiple sclerosis : The impact of disability,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Quality of life Research*, 15, 259-271.
- [24] A. L. Thoren-Jonsson, M. Hedber & G. Grimby. (2001). Distress in everyday life in people with Poliomyelitis

- Sequel.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33(3), 119-127.
- [25] S. M. Ryu. (2004).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on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1, 100-129.
- [26] J. S. Park, S. H. Hu & T. Y. Jeong. (2011). The effect of working conditions among paid workers with disabilities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Disability & Employment*, 21(1), 167-186.
- [27] Y. S. Park & J. Y. Song. (2012).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 of full-time work status changes among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a comparison of gender and disability level. *Disability & Employment*, 22(4), 113-137.
- [28] Y. S. Park. (2017).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 of changes in good job status of paid workers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are Management*, 23, 57-78.
- [29] S. W. Lee. (1997). 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types among the disabled : An analysis using probit.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33, 287-313.
- [30] E. R. Paik, H. K. Oh & D. I. Chun. (2007). A study on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disabled wome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Vocational Rehabilitation*, 17(1), 223-248.
- [31] B. O. Jeong. (2010).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in disabled women.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0(2), 143-174.
- [32] J. Kennedy & M. F. Olney. (2006). Factors associated with workforce participation among SSDI beneficiar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72(4), 24-30.
- [33] S. W. Kim & J. H. Jeon. (2016). A Study on economic retirement planning among middle and advanced-age disabled women : Focusing on disability level. *The Women's Studies*, 90(1), 131-162.
- [34] E. K. Shin & J. A. Choi. (2007). Factors of social integration among disabled persons with spinal injuries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Rehabilitation and Welfare*, 11(1), 1-29.
- [35] J. S. Choi & J. Y. Son. (2010). An Influence of the disabled on the social integration : Focused on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ctivities, social support and disability identity, discrimination experiences. *Korean Academy of Disability and Welfare*, 12, 35-66.
- [36] S. W. Kim, D. U. Kang, A. R. Koh & J. H. Kim. (2015).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participation in part-time work among women with severe and minor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5(1), 1-31.
- [37] J. Y. Min, H. J. Kim, H. S. Kang & S. C. Kim. (2016). 8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SEONG NAM : EDI.
- [38] D. P. MacKinnon, C. M. Lockwood, J. M. Hoffman, S. G. West & V. Sheets.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39] R. T. Roessler & S. E. Rubin. (2006). *Case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Counseling : Procedures and Techniques*. PRO-ED, Inc. 8700 Shoal Creek Blvd, Austin, TX 78757.
- [40] J. S. Jeon, H. J. Cho & M. Y. Choi. (2006). *Roles and Measures of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to Expand Employment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SEONG NAM : EDI.

김 승 완(Kim, Soung Wan)

[정회원]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정책, 재난 위기관리, 공공관리

· E-Mail : waniss@knuw.ac.kr